

市·道교육청 내년 예산안 '미래교육' 중점

광주 2조8천억·전남 4조8천억...올해비 7.2% ↑·0.7% ↓ 市 자체기금 활용 부족분 충당·道 학교업무 경감 반영

광주·전남교육청이 각각 2조8천702억원, 4조8천85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11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천934억원(7.2%)이 늘어난 반면, 전남교육청은 320억원(0.7%)이 줄었다.

다만 광주교육청의 경우 2024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자체 법정전입금을 감안

하면 실제 증가액은 69억원(0.24%)에 불과하다.

광주교육청의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조6천701억원 ▲자체수입 141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00억원 등이다. 또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및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천709억원을 충당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조7천134억원 ▲학교·기관 운영비 2천88억원 ▲교육사업비 7천66억원 ▲시설사업비 2천

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 77억원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 보편적 교육 복지 지속 추진 및 AI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전남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200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천499억원 ▲자체 수입 327억원 ▲전년도 이월금 621억원 ▲기금전입금 4천200억원 등이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천715억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천826억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563억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1조4천221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중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문화 실현과 미래교육을 대비한 2000교실 구축·운영에 152억원을, 글로벌 전남 국제교육 확대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에 13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학교 재량권 확대를 위해 목적 사업비로 학교에 교부하던 68개 사업 총 1천688억원을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

시·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2월13일, 12월12일 각각 시·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다이가

월출산국립공원 탐방로 15일부터 한달간 통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 및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 통제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제 강화 구간은 기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강진 무위사-미왕재(2km)이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강창구 탐방시설과장은 "가을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져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산행 시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위법행위를 절대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직박구리의 '홍시 만찬' 포근한 날씨를 보인 11일 광주 외곽지역인 북구 충효동의 한 감나무에서 직박구리 한마리가 잘 익은 홍시 배를 채우고 있다. /김영근 기자

"5·18 유족 범위 협소 여부 면밀히 살펴야"

5·18재단 등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토론회... "특별법 필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된 일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 등은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를 공론화하고, 5·18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5·18 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

상 소송 판결 개관'을 주제로 기초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예시로 "현 5·18 보상법에 따른 판결에서 인정한 유족 범위에 대해 검토 후 사실혼 관계의 사람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 기준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배상액 적정성 검토와 소멸시

효 만료 시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5·18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소멸시효 적용의 문제점 ▲국가배상은 전쟁에 걸친 피해배상 등 4가지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전체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유공자의 동일한 손해액 적용보다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성학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4 해질 17:29
달돋이 15:08 달질 02:28

인천	12/17	서울	11/18	대전	9/19	전주	11/19	목포	13/18	흑산도	12/19	제주	15/20	여수	13/20	부산	13/22
----	-------	----	-------	----	------	----	-------	----	-------	-----	-------	----	-------	----	-------	----	-------

광주	구름조금	10/19
목포	구름조금	13/18
여수	맑음	13/20
나주	구름조금	9/19
완도	맑음	12/21
강진	맑음	9/20
구례	맑음	10/20
해남	맑음	9/19
장성	구름조금	9/20
보성	맑음	8/19
순천	맑음	11/20
영광	구름조금	10/18
진도	맑음	12/19
흑산도	구름조금	12/19
고흥	맑음	9/21

● 생활정보지수
 너들이 80 | 빨래 90 | 세차 90 | 운동 80
 일교차 주의해요 | 야외건조 좋아요 | 세차하기 좋은날 | 감기 조심해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0
남부 먼바다(북)	0.5-1.5	0.5-1.5
남부 먼바다(남)	0.5-1.5	0.5-1.5
남해 앞바다	0.5-1.0	0.5-1.0
서부 먼바다(동)	0.5-1.5	0.5-1.5
서부 먼바다(서)	0.5-1.5	0.5-1.5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10:48	04:02
	23:15	16:21
여수	06:00	11:55
	18:25	--:--
녹동	06:42	00:54
	19:06	12:59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1월 13일(수)	(9/21)	(8/19)	(12/16)	(9/18)	(15/21)
14일(목)	(11/20)	(11/17)	(10/19)	(8/19)	(16/23)
15일(금)	(14/20)	(13/19)	(12/19)	(12/19)	(18/23)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전남 5개 국립대 '연합축제' 연다

21일 전남대 용봉홀·민주마루 앞 잔디광장서 '오지다' 개최

전남대학교 등 광주·전남 소재 5개 국립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장소를 돌며 QR로 퀴즈를 푸는 '오지다' 연합축제를 연다.

11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 광주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등 광주·전남지역 5개 국립대가 오는 21일 전남대 용봉홀과 민주마루 앞 잔디광장 일원에서 각 대학의 숨은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연합축제 '오지다'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5개 대학 문화공연 '오쇼' ▲광주전남 공동교육혁신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청

춘 도전 스토리' ▲5개 국립대 추천 도시 소개 '대학애서' ▲전남대 캠퍼스 주요 장소를 돌며 QR로 퀴즈를 푸는 '오지다' QR 놀이터 ▲추억의 보물찾기 ▲오지다 삼행시 ▲전남대 민주길 투어 ▲체험 및 전시 부스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참여하는 '전남대 용봉포럼'과 지역 문제를 공공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하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도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김다이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호젓해서 좋은 신안지도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3, 8, 13, 18, 23, 28일

※ 신안군내시장 : 송도수산물시장, 신안젓갈타운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신안군

문의 : 062)650-2099